

목회상담자로서의 요한 칼빈 재조명

전 형 준*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상담자로서의 Calvin을 재조명하는 데 있다. 연구 과제로는 첫째, Calvin의 기독교강요에 성경적 상담의 원리가 나타나는가? 둘째, Calvin의 설교가 성경적 상담설교와의 상관성이 있는가? 셋째, Calvin의 목회적 돌봄 사역에서 상담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lvin의 기독교강요에 성경적 상담의 원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기독교강요 제1부 15장에 근거하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2부 1장에 근거한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를 지닌 인간은 제1부 3장과 2부 4장에 근거하고, 성경이 상담의 주요 도구가 되는 것은 제1부 6장과 1부 9장에 근거한다. 또한 예수가 상담의 모델임은 제2부 12장과 2부 13장에 근거하며,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인 인간에 대해서는 제2부 2장과 2부 3장에 근거하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인간은 제1부 7장과 제2부 2장, 제3부 1장에 근거한다. 둘째,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 방법론은 성경적 상담설교와 깊은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했다. 셋째, 목회 돌봄 사역에 나타난 목회상담자 Calvin의 모습은 심방과 상담을 따뜻하게 한 목회상담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목회상담자, 성경적 상담, 성경적 상담설교, 목회적 돌봄, 재조명.

• 논문 투고일: 2018년 3월 30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4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3일

*백석대학교

• 이 논문은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여는 글

정성구(2009)는 John Calvin(1509-1564)에 관해 평가하기를 “Calvin은 종교개혁의 제2세대로서 기왕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예컨대 Luther와 Zwingli 등의 사상과 그의 동료들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정성구 2009: 13-14)고 평가하였다. Calvin은 지난 천년 기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16세기 교회의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Luther와 함께 Calvin을 사용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였다(정성구, 2009). Calvin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명을 가진 자였으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였다. 지금까지 Calvin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신학이나 교회사에서 이루어졌으며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종교개혁 500주년 즈음을 기념하여 Calvin을 목회상담자로서 재조명하고 성경적 상담자로서의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일차 자료는 크게 다섯 가지로 첫째, 기독교강요, 둘째, 성경주석, 셋째, 설교집, 넷째, 편지, 다섯째, 신학논문이다(정성구, 2009). 이러한 일차 자료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Calvin의 기독교강요는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Calvin의 설교는 성경적 상담설교와 상관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 Calvin의 목회적 돌봄 사역은 목회상담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II. 펴는 글

1.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성경적 상담 원리

Calvin의 기독교강요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에는 7대 원리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둘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 셋째,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넷째, 성경적 상담의 도구는 성경이다. 다섯째, 성경적 상담의 모델은 예수그리스도이다. 여섯째,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일곱째,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Tripp, 2000; Tripp, 2002; 전형준, 2012; 황규명, 2008; 전형준, 2013).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원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들과 CCEF(Christian Counseling Educational Foundation)의 전문 상담교수들이 제시한 개혁신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Calvin(1988)은 기독교강요 제1부 15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믿을만한 증거는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창 1:27).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로 나는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Calvin, 1988: 290-291).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alvin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 형상의 본래의 자리는 인간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결합할 수 있는 근거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성경적 상담학자 Paul David Tripp(2002: 41-42)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존재의 가장 기본적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심리적 필요를 채워 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Welch, 1997: 157)하는 것이다. 이처럼 Calvin은 기독교강요에서 성경적 상담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2)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인 인간

기독교강요 제2부 1장에서 Calvin(1988: 363)은 “아담의 타락과 배반으로 인류 전체가 저주에 넘겨졌고 그 원상태가 부패하였다”고 하였다. 이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사람의 본성은 망상적인 자기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창 3장): 그것은 배신이다”고 하였다(Calvin, 1988: 365-366). 그는 최초의 죄가 원죄이고 죄는 유전되며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독교강요 2부 3장에서 로마서 3장이 사람의 부패를 증언한다고 강조하였다(Calvin, 1988).

Edward Welch(1997)는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

하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심리학에서 인간은 스스로 성장과 적응과 자립을 위해 움직이며 자기구현이 인간 속에 기본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구현이란 자기 속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실현하고 가시화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 경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주면 밖으로 열매를 맺고 훌륭한 사람이 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론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성경적 인간관을 정면 부정하는 이론이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된 인간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기독교강요의 인간타락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적 상담의 두 번째 원리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3) 마음의 문제를 지닌 인간.

Calvin(1988)은 기독교강요 제1부 3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었다”(Calvin, 1988: 89-94)라고 하였고, 기독교강요 제2부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 하시는가? 사람은 악마의 세력 하에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를 따른다”(Calvin, 1988: 450-451)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굳다’ 라는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의 영이 제거되면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굳어진다. 그의 인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틀리고 구부러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보며, 복종하며, 바르게 따르는 능력을 빼앗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멀며 마음이 굳고 비뚤게 만드신다는 것은 당연하다(Calvin, 1988: 450-459).

Calvin(1988)이 본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이 마음속에 뿌리박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인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데 마음이 부패하여 사탄의 세력 하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이 돌 같이 굳어져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 굳어진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Tripp(2003)은 누가복음 6장 43-46절을 인용하며 나무뿌리에서 생산하는 열매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인간의 말이란 그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뿌리의 열매이다. 사람의 말의 문제는 항상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인간의 마음의 문제는 인간의 행동과 삶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Calvin(1988)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세 번째 원리와 상관성을 보여준다.

4) 성경이 성경적 상담의 도구.

Calvin은 기독교강요 제1부 6장에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Calvin, 1988: 127)고 강조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 뿐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과 성경은 창조의 계시를 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그는 기독교강요 제1부 7장에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는 확실한 것으로 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 된다는 것은 거짓이다”(Calvin, 1988: 134-144)고 하였다. 이어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것과 성경은 자중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1부 9장에서는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 한다”(Calvin, 1988: 161-165)고 하였다.

성경의 무오성을 강조한 Calvin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자연계시와 함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셨다. 또한,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Tripp(2002)은 성경의 특성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준다. 둘째, 성경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 셋째, 성경은 인간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넷째, 성경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함을 가르쳐준다. 다섯째,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능력을 받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경말씀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받고, 권면하고, 상담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상담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몇 구절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며, 상담에 있어서 성경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Tripp, 2002).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네 번째 원리로 삼고 있는 상담의 도구로서 성경을 말하는 원리와 Calvin의 주장은 깊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5)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 상담의 모델이다

Calvin은 기독교강요 제2부 12장에서 “중보자의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셔야 했다”(Calvin, 1988: 644-645)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깊고 먼 거리를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Calvin은 기독교강요 제2부 13장에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였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고, 참사람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다”(Calvin, 1988: 660-666)고 하면서 그리스

도의 인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Calvin, 1988: 726)고 하면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배제하지 않고 그 은총 앞에 설 뿐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연결한다는 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라는 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공로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alvin의 기독교강요에서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할 수 있는 분이시며,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죄인 된 인간의 구속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됨을 강조 하였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자로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치유 되고 회복되었다.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상담하셨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상담하셨으며,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를 상담하셨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시몬 베드로도 상담하여 주셨다. 신재덕(2017)은 예수님의 상담에 관한 분석과 독특성 연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을 평생상담이라 명명하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 대하여 평생상담을 하셨는데, 그것을 부르심의 상담, 세우심의 상담, 회복의 상담, 보내심의 상담이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아이로에 대하여 믿음으로 구원 받는 구원 상담, 니고데모에 대하여 중생의 진리상담,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참 예배에 대한 상담, 도마에 대하여 부활의 진리상담이라 명명하며 예수님의 상담의 독특성을 연구하였다(신재덕, 2017).

Tripp(2002)은 성경적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고후 5:20)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방법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Calvin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보자요, 구속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다섯 번째 원리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고통당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Calvin은 기독교강요 제2부 2장에서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Calvin, 1988: 380)고 하였다. 그리고 제2부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 받을 일 밖에 없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 사업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Calvin, 1988: 423-446).

Calvin의 주장에서처럼,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채로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 고통하고 있다. 또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정죄 받을 일 밖에 없으므로 고통당하고 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과 고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 고서는 소망이 없다.

David A. Powlison(1997)는 상담자는 인간의 고통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편 10편은 타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며 고통과 피난처에 대한 메시지임을 강조하였다. 말씀은 고통이라는 현실상황을 직면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Powlison(1997)은 고통 가운데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부터 오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Tripp(2002)은 인간은 고통당하는 존재이나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고 역설하였다. 이처럼 Calvin의 고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성경적 상담의 여섯째 원리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7)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인간의 변화

Calvin(1988)은 기독교강요 제1부 7장에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Calvin, 1988: 134-135)고 하였고, 제2부 2장에서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암흑이다.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가 없다”(Calvin, 1988: 411-422)고 하였다. Calvin은 기독교강요 3권 제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Calvin, 1988: 7-12)고 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피로서 강조하였다.

Calvin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한 신학자이다. 성령과 성경말씀과의 깊은 관련성을 강조하였고, 빛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선을 사모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할로 보며 성령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성경 말씀의 능력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고 인간의 변화를 성경적 상담의 관점과 일치시키고 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므로 인간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Jay E. Adams(2004)는 상담에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 하였다. “성령은 인간의 성화를 포함한 참된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다. 성령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Adams,

2004: 8)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성화와 성품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을 강조한 말이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 마음의 변화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의 충생케 하시는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Adams, 2004). 즉 변화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다. Calvin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성경적 상담의 일곱째 원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적 상담설교와의 상관성

Calvin은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기를 좋아했다(Boice, 1580, 1996). Calvin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설교라고 보았다(Leith, 1990). 하나님께서 인간사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삶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설교라고 믿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수종자로 섬기고자 하였다. Calvin은 성경이 제대로 의도된 청중을 만나는 것은 주석에서가 아니라 설교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다(Zachman, 2006). 그런데 그러한 Calvin의 설교에는 목회상담가로서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그의 설교는 성경적 상담과 상관성을 보여주는 상담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류응렬(2009)은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주해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보았다. 첫째, Calvin은 본문 그대로 풀어주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중세의 알레고리 해석에서 벗어났다. 또 그는 저자가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았다. 둘째, Calvin은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한다. 저

자가 문자를 통해 전달한 말씀을 성령의 본래 의도라는 것이다. 셋째, Calvin은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설교로 발전된다. 넷째, Calvin은 본문을 주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본문을 청중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은 성경적 상담이론을 설교와 통합한 성경적 상담설교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전형준(2003)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를 다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상황 속에서 진입구를 발견하라. 둘째,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 넷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라. 다섯째,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획 하라 이다(전형준, 2013: 224-231).

첫째, Calvin이 본문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고, 특히 저자가 말하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세 번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라는 의미가 강해설교를 하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Calvin은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며, 저자가 문자를 통해 하는 말씀이 성령이 주는 본래의 의미라는 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네 번째 구조와 상관성을 가진다. 즉, 성경적 상담설교의 네 번째 구조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적변화의 8단계 로드맵에서 여섯 번째 단계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진 마음이다(전형준, 2012). 또한, 성경적 상담의 일곱 번째 원리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새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Calvin이 성경의 문자적 기록이 성령의 뜻과 일치한다는 성경해석 방법과 성경적 상담설교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은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

셋째, Calvin은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설교로 발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세 번째 구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과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 즉, Calvin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은 성경적 상담설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과 연결되며, Calvin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는 설교를 하라는 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전형준, 2013). 넷째, Calvin은 본문을 주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본문을 청중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다섯째 구조인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획하라’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즉, 설교가 단순히 본문의 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메시지와 청중의 삶을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변화된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여 삶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촉구하는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와 정확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전형준, 2013).

이처럼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은 집단상담의 한 형태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인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Calvin의 설교에서 상담

적 요소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Calvin의 설교신학은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Calvin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정한 통로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올랐으며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설교자의 제일 목적으로 삼았다(류응렬, 2009).

성경에 대한 Calvin의 확신은 설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다. 성경에 대한 그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alvin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는 “영감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공적으로 해설해 주는 것을 통해 성령의 도움 하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준다”(Packer, 1966: 167)고 확신하였다. Calvin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바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진 신학적인 이유에 있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었다. Calvin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에 차서 순수한 말씀의 기초만을 풀어주기 위하여 매번 강단에 올랐다(Lawson, 2007). Calvin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설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 것처럼, 성경적 상담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상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Calvin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다(Partee, 2008). 성경은 다양한 저자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시대와 상황이 다른 다양한 내용이 공존하지만 Calvin의 성경 해석과 설교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사상이었다. Calvin이 성경이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며, 인류를 향해 들려주는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통일성을 보인다(Parker, 1992). 구약

과 신약이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상은 그의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Calvin은 구약을 설교하면서 신약을 인용하고, 신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을 포함한 다른 성경구절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성경의 통일성은 소위 '성경이 성경을 해석 한다'는 개혁가의 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Calvin이 평생토록 생명을 바쳐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한 근거는 성경이 구원과 삶의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성경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확신 때문이다(류응렬, 2009). Calvin의 설교에서 성경적인 성경관이 바탕이 된 것처럼, 성경적 상담은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이다. 또한, 성경적 상담설교는 성경적인 성경관을 가진 성경적인 설교이다(전형준, 2013).

Calvin의 설교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로 첫째,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Parker, 1947).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지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는 말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둘 수 있는 것은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설교자에게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삽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Calvin에게 있어서 설교와 성경과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Parker, 1992).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설교자의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에 근거한다.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말씀을 위탁한 대사라는 사실은 전해야 할 내용의 방향을 보여준

다. Calvin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강조한 것은 성경적 상담의 신학적 기초에서 성경적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전형준, 2013).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방법을 사용하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Calvin의 설교에는 수사학적인 빼어남은 없었을지라도, 그의 사고력, 그의 의지력, 그의 말씨와 우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말로 빛을 내게 했던 그 진지함은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고, 기독교신학의 위대한 진리들을 청중의 마음에 새겨 주었을 것이다(Dargan, 1905). 이와 같은 표현에서 Calvin이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신학의 위대한 진리들을 청중의 마음에 새겨 주었을 것이다”(Dargan, 1905: 449)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적 상담의 목표와 Calvin의 설교의 목표에 일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상담의 세 번째 원리가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고, 상담의 목표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상관성을 가진다(전형준, 2013).

우리는 진정한 변화란 그 분께로 가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하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관계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바라본다(Powlison, 2012: 10-11).

Calvin이 ‘가능하면 좋은 나팔을 가져서 가슴 깊숙이 관통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표현한 것도 설교를 통하여 사람의 가슴 깊숙이 관통시키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Vollmer, 1909).

Calvin의 설교는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상담적 설교라고 할 수 있다. Parker(1947: 39f)는 “Calvin이 이룩한 종교개혁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구원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었다”(Parker, 1947: 39f)고 하였다. 이처럼 Calvin은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3. 목회 돌봄 사역에 나타난 목회상담자 칼빈

목회적 돌봄의 어원은 라틴어 cura animarum에서 왔다. cura의 번역을 돌봄(care)이나 치유(cure)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영혼의 돌봄이나 영혼의 치유로 번역 할 수 있다. 영어로는 pastoral care이며, 독일어에서는 seelsorge로 번역한다. 권명수(2009)는 목사의 기능 가운데 목회적 돌봄이 예배, 목회, 설교 중 목사의 핵심역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관점이다. 목회적 돌봄으로서의 예배와 설교 그리고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Calvin은 신자가 개인생활에 허물이나 범죄 함이 있으면 주의 만찬에의 참여를 제한하여 성만찬의 올바른 준행과 경건하게 참여토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주의 만찬이 신앙인에게 큰 위로를 주기에 매주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그리스도의 거룩한 만찬의 참여는 적어도 매주일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Calvin, 1537: 49)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당시의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과 현실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의 현실은 일 년에 3-4회 실시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모임 때마다 떡을 떼었던 것을 예로 들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으로 인해 자주 시행하면 경솔히 여길 수 있어 매월 일회씩 이 거룩한 만찬

에 참여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렇듯 Calvin과 개혁자들은 신앙에 큰 위로를 주는 성만찬을 신자들이 존엄하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목회의 중심과제로 보았다(Calvin, 1537).

Calvin은 예배에서 시편 낭송을 통해 신자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Calvin, 1537). 이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분께 일치로 향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분께 일치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곧 성경적 상담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Calvin의 제2차 제네바 교회 정치 규정 제출안에 따르면, 교회 규정 서문에 1) 주의 복음진리가 순전하게 보존되며, 2) 교회가 잘 유지되며, 3) 후대를 담당할 젊은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며, 4)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4개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4 직제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다. 특히,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권면, 권고, 징계하며, 성례전의 집행과 장로와 동역 자와 함께 형제애적인 교화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Caswell, 1966). 여기서 목사의 직무가 말씀 선포, 교육, 그리고 권면으로 표현된 상담사역임을 알 수 있다.

Seward Hiltner(1958)는 목회적 돌봄에 대하여 초석을 놓은 인물인데 그는 목회신학의 내용에서 목양이란 이미지로 자신의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는 목회신학을 관점이란 시각에서 조직화 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일, 복음을 소통하는 일, 신자들을 조직화 하는 일로 보았다. 특히, 양을 돌보는 목양의 기능을 크게 3가지로 보았는데, 곧 치유, 지탱, 인도이다. 치유의 기능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일이다. 지탱이란 치유할 수 없는 상황들인 환경적 요인, 신체적으로 만성적인 상황이나 불치의 질병들은 어찌 할 바가 없으므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달래주어, 계속 믿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요청된다. 인도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 영혼에게 처한 바를 탐색하고 현재의 문제를 명료하도록 도와주는 영혼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 가능한 일들을 살펴보고 결정하고 나가게 하는 일이다. 여기에 영적지도가 필요하다.

Hiltner는 이러한 목회적 돌봄의 3가지 기능에 화해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Clebsch & Jaekle, 1975).

Calvin 초기 교회 규정에 나타난 목회적 돌봄을 살펴보면, Calvin과 Geneva의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유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에 대해 진실한 경외심을 가지고 참여토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이러한 경건하면서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 태도를 개인의 자발적 의지에 맡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로서 명시하였던 것이다(권명수, 2009).

또한, Calvin의 교회법 초안의 교회훈련에는 깨진 관계의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되어 있다. 곧, 예배나 주의 만찬의 불경건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혼, 일상생활의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적절한 매개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Calvin의 교회법 초안은 화해의 기능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Demura, 1992). 이런 점에서 Calvin의 목회적 돌봄을 화해의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Calvin의 목회가 목사 개인의 활동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Geneva 도시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역 목회자와 함께,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도시민들의 영적,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고자 시도하였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의회를 통한 입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시도하였다

(Gerkin, 1999). 이것은 목회상담사역이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와 정치와 경제, 국가로 확산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Calvin 연구의 대가인 정성구 박사는 Calvin에 관하여 상담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Calvin은 비평가들의 일방적 생각과는 달리 사랑과 화해의 목회자였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바른 자료를 가지고 정직히 평가해야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진실한 목회자요, 설교자일 뿐 아니라 그는 심방과 상담을 잘 했다. 어떻게 그렇게 변약한 몸을 가지고 그토록 바쁜 일정 속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는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정성구, 2009: 172).

여기서 특히, Calvin에 대하여 ‘심방과 상담을 잘했다’라는 표현에서 목회 상담자로서의 Calvin을 발견할 수 있다. 정성구(2009)는 복음의 위로자로서 목회상담사역에 충실한 Calvin을 소개하였다.

1538년, Calvin이 바젤에 머물고 있을 때, 파렐의 조카가 방금 페스트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한다. 당시로는 페스트 병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전염병이므로 격리시키던 때였다. 그러나 Calvin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환자에게 달려가서 복음의 위로와 기도를 했다. Calvin의 심방은 위험하기 짝이 없었으나 영혼 사랑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끝내 그 환자는 회생을 못하고 숨을 거두자 Calvin 목사는 그의 장례비를 부담했다. 또 그가 한창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두고 간 자녀들을 전적으로 돌보아 주었다(정성구, 2009: 172-173).

위의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alvin은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환자에게 달려갔고 기꺼이 복음으로 위로하며 기도하였다. Calvin은 영혼을 사랑

하는 목회상담자로서 죽음의 위협에 있는 환자를 상담하며 돌봐주었고, 장례비 부담과 고인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헌신은 목회자로서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듯 Calvin의 헌신과 겸손한 봉사는 그를 잘 알지 못하고 악랄한 비평을 퍼붓는 사람들의 말과는 전혀 반대였다. 정성구는 Calvin을 섬세하고 아름다운 상담자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Calvin은 참 목자로서 사랑과 헌신을 엿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Calvin의 편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목사로서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상담자였나를 깨닫게 한다”(정성구, 2009: 173)고 하였다. 또한 “Calvin의 목회적 돌봄은 일반인들이 Calvin을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는 신학도로서 날카롭고 냉정한 인물일지 몰라도 목사로서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정성구, 2009: 174-175)고 표현함으로써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상담목회자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정성구는 Calvi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이처럼 Calvin은 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슴이 따뜻하고 여리며,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 상을 보여 주었다. 비평가들은 Calvin의 편지와 설교를 읽어보지도 않고, 오직 Calvin을 극렬히 비방하고 조소하고 악랄하게 저주하던 자들의 문헌을 기초로 해서 Calvin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Calvin은 말씀의 종으로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과 겸손의 종이였다. Calvin은 평생 동안 자기를 드러 내거나 자기변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할 때는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았다(정성구, 2009: 175).

이처럼, Calvin은 가슴 따뜻하고 여리며, 다른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참 목자 상을 보여주었고, 말씀의 종으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신앙과 겸손의 종이였다(정성구, 2009). 가슴이 따뜻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회상담자가 가져야 할 마음ियो 자질이다. 정성구는 목회자로서의 Calvi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Calvin이 참 목자로서 살려고 애쓴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고 노력한 때문이다. Calvin은 목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목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여야 하고 날마다 배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건의 훈련,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Calvin은 목사의 덕목으로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Calvin은 목회를 “영적전쟁”으로 생각했다.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Calvin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회의 지침을 주면서 영혼 사랑의 목사의 모습을 친히 보여 주었다(정성구, 2009: 175-176).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Calvin은 참 목자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성경적 상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함께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고 한다(황규명, 2008). Calvin은 목사의 자격으로서 성령의 은사와 배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경건의 훈련과 불굴의 용기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경건의 중요성과 영적전쟁으로서 목회사역을 언급하면서 목사의 자질이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의 목회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이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목회상담자로서의 Calvin을 재조명하면서 다음 세 가지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Calvin의 기독교강요는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둘째, Calvin의 설교는 성경적 상담설교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셋째, Calvin의 목회적 돌봄 사역은 목회상담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lvin의 기독교강요는 성경적 상담의 일곱 가지 원리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1)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란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1부 15장에 근거하고 있다. 2)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인 인간의 원리는 기독교강요 2부 1장에 근거하고 있다. 3) 마음의 문제를 지닌 인간의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1부 3장과 2부 4장에 근거하고 있다. 4) 성경이 상담의 도구이다는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1부 6장과 1부 9장에 근거하고 있다. 5) 예수 그리스도가 상담의 모델이다는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2부 12장과 2부 13장에 근거하고 있다. 6) 고통당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2부 2장과 2부 3장에 근거하고 있다. 7)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인간의 원리는 기독교강요 제1부 7장과 제2부 2장에 근거하고 제3부 1장에 근거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 방법론은 성경적 상담이론을 설교와 통합한 성경적 상담설교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1) Calvin이 본문을 그대로 풀어주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고, 특히 저

자가 말하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세 번째 구조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라는 의미가 본문을 그대로 풀어주는 강해설교를 하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2) Calvin은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며, 저자가 문자를 통해 하는 말씀이 성령이 주는 본래의 의미라는 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네 번째 구조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라는 것과 상관을 가진다. 3) Calvin은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강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설교로 발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세 번째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과 깊은 상관을 가진다. 4) Calvin은 본문을 주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본문을 청중의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성경적 상담설교의 다섯째 구조인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획하라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해석방법론은 집단상담의 한 형태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인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Calvin의 설교에서 상담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셋째, 목회 돌봄 사역에 나타난 목회상담자 Calvin의 모습을 조명해보았다. Calvin은 위로의 복음을 강조함으로써 상담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말씀과 성례의 시행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다. 또한, Calvin 초기 교회 규정에 나타난 목회적 돌봄을 살펴보면, Calvin과 Geneva의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화해의 사역을 소중하게 여겼다. 더 나아가 Calvin은 심방과 상담을 잘한 따뜻한 목회상담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기독교는 다시 한 번 새롭게 거듭나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Calvin과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세심히 돌보는 목회상담가로서의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다시금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개혁되고 부흥되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 참고문헌 】

- 권명수 (2009).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의 실천신학 분야의 이해에 대한 비교연구. *신학과 실천*, 19(1), 5-38.
- 권명수 (2009). 칼빈의 목회훈련 연구. *신학과 실천*, 19(2), 45-74.
- 류응렬 (2009).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 해석 방법론. *설교한국*, 1, 226-265.
- 신재덕 (2017). 예수님의 상담에 관한 분석과 독특성 연구 -성경적 상담 관점으로-.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형준 (2012). *성경적 상담학*. 서울: 대서.
- 전형준 (2013). *성경적 상담설교*. 서울: CLC.
- 정성구 (2009).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서울: 하늘기획.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 리더스.
- Adams, Jay E. (2004). *목회상담학*(정정숙 역, *Competent to Counsel*).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원전 1970 출판).
- Boice, James (1580, 1996). Foreword to John Calvin. *Sermonson psalm 119* by John Calvin. Audubon, NJ.: Old Paths Publications.
- Calvin, J. (1956).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47-55.
- Calvin, J. (1986). *기독교강요*(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517 출판).
- Caswell, R. N. (1966). *Calvin's view of ecclesiastical discipline*. John Calvin, ed. by G. E. Duffield. Michigan: Grand Rapids.
- Clebsch, W. A. & Charles, R. J. (1975).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Northvale. New Jersey & London: Jason Aronson Inc.
- Dargan, E. C. (1905). *A history of preaching, Vol 1, A.D. 70-1572*. Hodder & Stoughton and G.H. Doran.
- Demura, A. (1992). Calvin's and oecolampadius.' concept of church discipline.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Calvin's ecclesiology: sacraments and deacons*, Vol 10. edited by Richard C.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 Inc.
- Gerkin, C. V.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유영권 역, *An introduction to the pastoral care*). 서울: 은성. (원전 1997 출판).

- Hiltner, S. (1958).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 Lane, T. & Paul D. Tripp (2006). *How people change*. Greensboro: New Growth Press.
- Lawson, S. J. (2007). *The expository genius of John Calvin*. Orlando: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 Leith, J. H. (1990). Calvin's doctrine of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its significance for today.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ed.) Timothy Georg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Packer, J. I. (1966). Calvin the Theologian. *John Calvin: A Collection of Essays*, 149-175.
- Parker, T. H. L. (1992).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 Parker, T. H. L. (1947). *The oracles of God: An introduction to the preaching of John Calvin*. Lutterworth Press.
- Partee, Charles (2008). *The theology of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 Powlison, D. (2012).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김준 역, *Seeing with new eyes*). 서울: 그리심. (원전 1997 출판).
- Powlison, D. (1997). *Seeing with new ey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Tripp, P. D. (2003).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윤홍식 역, *War of words*). 서울: 디모데. (원전 2000 출판).
- Tripp, P. D. (2000). *War of word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Tripp, P. D. (2002). *Instruments in the redeemers's Hand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Vollmer, P. (1909). Calvin, The preacher and pastor. *John Calvin-Theologian, Preacher. Educator. Statesman*. Cleveland: Central Publishing.
- Welch, E. T. (1997).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Overcoming peer pressure, co-dependency, and the fear of man*. Phillipsburg, Pa: P & R Publishing.
- Zachman, R. C. (2006). *John calvin as teacher. Pastor and theologian: The shaping of his writings and Though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Abstract 】

A Review of Calvin as a Pastoral Counsellor

Jun, Hyung Joon

Baek 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alvin as a pastoral counsellor. First, How the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ling are shown i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cond, How is Calvin's preaching correlated with biblical counselling preaching? Third, How is Calvin shown as a pastoral counsellor in his pastoral care mini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1) Humans were created in God's own image is based on Chapter 15 Book 1. 2) Humans were corrupted by sin is based on Chapter 1. Third, Human problems are the problems of the heart is based on Chapter 3 Book 1 and Chapter 4 Book 2. 4) The primary tool for counselling is the Bible is based on Chapters 6 and 9 Book 1. 5) The model of a biblical counsellor is Jesus Christ is based on Chapters 12 and 13 Book 2. 6) Humans are a suffering existence is based on Chapters 2 and 3 Book 2. 7) Genuine human changes are made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based on Chapter 7 Book 1, Chapter 2 Book 2, and Chapter 1 of Book 3.

Second, the methods of interpreting the Bible shown in Calvin's preaching were confirmed to have high correlations with biblical counselling preaching.

Third, how Calvin appeared as a pastoral counsellor in his pastoral care ministry was reviewed.

Key words: pastoral counsellor, Biblical counseling, counseling preaching, pastoral care, review